

『老松堂日本行錄』의 구성 방식과 詩序의 역할

김미선(전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노송당일본행록』 詩序의 역할 |
| 2.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 | 4. 맺음말 |

1. 머리말

『老松堂日本行錄』은 宋希環(1376~1446)이 회례사로서 1420년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것이다. 1420년 윤 1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의 일본 사행이 202편의 시와 두 편의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1471년 일본 사행 기록인 申叔舟의 『海東諸國記』보다 51년이 앞선 것으로 ‘우리 外交史上 現存하는 最古의 遣使記錄이요 外交記錄¹⁾’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노송당일본행록』은 그 중요성에 맞게 그 동안 몇 차례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상운이 1964년 『노송당일본행록』을 해제하였으며, 1970년대에 ≪해행

1) 강상운, 『老松堂 日本行錄』, 『국제정치논총』3, 한국국제정치학회, 1964, 124면. 박중훈도 논문 『老松堂 日本行錄』에 보이는 당대 日本認識, 『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3쪽)에서 ‘우리 외교사상 현존하는 최고의 본격적인 일본관련 기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총재》번역의 일환으로 남만성에 의해 번역되었고 강주진이 해제하였다.²⁾ 담양향토문화연구회에서 1991년에 번역, 해제하고 원본을 영인하여 출판하였다.³⁾ 같은 1991년에 동아인문학회의 『모산학보』 2권에도 심재완의 해제와 『노송당일본행록』의 영인본이 실렸다.⁴⁾ 이러한 연구는 해제, 번역, 영인이라는 연구의 초기적인 형태로,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종선, 김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⁵⁾ 정영문, 이효정, 박중훈, 한태문 등의 연구가 있다.⁶⁾ 이들의 연구에 의해 작품 외적으로는 송희경의 생애와 사행 배경, 노정, 당대의 조일관계와 대일교섭, 『노송당일본행록』의 저술과 간행과정, 작품 내적으로는 『노송당일본행록』에 담긴 일본의 모습과 일본인식 등에 대한 면모가 밝혀졌다. 그런데 『노송당일본행록』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정영문이 구성과 서술태도를,⁷⁾ 박중훈이 체계와 내용을⁸⁾ 살피고 있긴 하지만, 일본인식을 살피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노송당일본행록』은 사행의 전 과정을 시로 기록했으며, 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다양한 詩序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2) 宋希環, 『日本行錄』, 《국역해행총재》VIII, 민족문화추진회, 1977. 해제는 1974년에 작성되었으며, 번역문과 원문텍스트, 해제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 DB로 구축되어 있다.

3) 宋希環, 『完譯 老松堂日本行錄』,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1.

4) 심재완, 「老松堂日本行錄 解題」, 『모산학보』2, 동아인문학회, 1991.

5) 문종선, 「15세기 回禮使 宋希環에 關한 研究-日本行錄을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영식, 「老松堂日本行錄」을 통해 본 15세기 朝鮮의 對日本交涉와 認識,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 정영문, 「宋希環의 ‘日本行錄’ 研究」, 『은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이효정, 「朝鮮 前期 士大夫의 日本 使行 經驗-宋希環의 ‘日本行錄’을 中心으로-」, 『조선통신사연구』5, 조선통신사연구회, 2007; 박중훈, 「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當代 日本認識」, 『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한태문, 「庚子回禮使(1420)와 히로시마의 오노미치(尾道)」, 『국제어문』62, 국제어문학회, 2014. 이외에도 水野俊平의 「老松堂日本行錄」에 나타난 일본 지명」,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2이 있지만, 이는 완결된 논문이 아닌 발표문의 형태이다. 또한 윤인현의 「海行摠載 所載 日本 기행시 考察」, 『한문학보』21, 우리문화학회, 2009과 같이 『노송당일본행록』을 연구 대상의 일부로 삼은 경우는 본 연구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7) 정영문, 「宋希環의 ‘日本行錄’ 研究」, 『은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134~136면.

8) 박중훈, 「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當代 日本認識」, 『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6~18면.

이후 일본 사행록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노송당일본행록』만의 독특한 구성 방식이다. 또한 날짜 표기 등에 있어서는 일기체적인 면모를 보이며, 두 편의 산문도 실고 있고 시서의 비중이 커서 단순한 시집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노송당일본행록』의 문학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특하면서 복합적인 구성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노송당일본행록』 구성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詩序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할 것이다.

2.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

2.1. 노정에 따른 일기체적 전개

『노송당일본행록』은 202편에 이르는 시로 사행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시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조선의 선비가, 일본 사행이라는 특수한 경험 중에 시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정 중간 중간 감흥을 시로 쓴 것이 아니라, 10개월의 노정 전체를 시로 정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송희경이 이렇게 시로 일본 사행 전체를 기록한 것은 세종의 명령 때문이었다.

대개 복명하던 날 상이 편전에서 신希環을 불러 하교하기를, “타국으로부터 돌아왔으니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 하시고 신孔達에게 하교하시기를, “타국에서 돌아왔으니 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시었다.環은 공경하여 상명을 받들고 출성하던 날로부터 복명한 때까지를, 천루함을 생각지 않고 모든 귀와 눈에 접한 것은 다 기록하여 詩로 만들었다.

永樂 18년 경자 10월 하순, 본국에 돌아와 씀.⁹⁾

9) 蓋復命之日, 上召入便殿, 教臣希環曰, 歸自他國, 詩不可以不作, 教臣孔達曰, 歸自他國, 書不可以不書. 環敬承上命, 自出城至復命, 不揆淺陋, 凡有接於耳目者, 皆記而詩之云爾. 永樂十八年庚子十月下澣, 還本國, 書.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137~138면. 본 논문은 『完譯 老松堂日本行錄』(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1) 영인본과 《국역해행총제》 남만성의 번역을 주요 자료로 삼았다.

위는 『노송당일본행록』 마지막에 실려 있는 송희경 글의 끝 부분이다. 10개월의 기록은 위의 내용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세종의 명으로 사행의 전 과정을 시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송희경에게는 시를, 공달에게는 글을 명령했으므로 송희경은 전체를 시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는 돌아와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일본 사행 중에 지은 것을 세종의 명을 받은 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에 서울에 들어가 세종을 만났는데, 10월 하순에 이 행록을 완성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물리적으로 며칠 만에 202편의 시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더구나 10개월간의 일을 기억을 더듬어 일순간에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송희경은 일본 사행 기간 동안 작성했던 기록과 시를 세종의 명을 듣고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정에 따라 일기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10개월간 일본 사행을 노정에 따라 일기체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黃愼(1560~1617)의 『日本往還記』(1596년 8월 3일~1596년 12월 9일), 慶暹(1562~1620)의 『海槎錄』(1607년 1월 12일~1607년 7월 17일), 吳允謙(1559~1636)의 『東槎上日錄』(1617년 7월 4일~1617년 10월 18일), 李景稷(1577~1640)의 『扶桑錄』(1617년 7월 4일~1617년 10월 18일), 強弘重(1577~1642)의 『東槎錄』(1624년 8월 20일~1625년 3월 26일) 등 조선 후기 일본 사행록은 대부분 노정에 따른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송당일본행록』은 조선 후기 일기 형식 사행록과는 달리 산문이 아닌 시이면서 노정에 따른 일기체적 전개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을 지닌다. 그런데 ‘일기’가 아닌 ‘일기체적’이라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일기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료로 하였다. 영인본은 1860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을 영인한 것이다.

노정	시 편수	날짜 수	날짜
조선 경내	30	4	윤 정월 15일 2월 3일, 5일, 13일
대마도~ 경도	82	16	2월 17일, 20일, 21일, 28일 3월 1일, 2일, 3일, 4일, 21일, 23일, 30일 4월 1일, 4일, 15일, 16일, 20일
경도	42	9	4월 21일, 22일, 23일, 23일 ¹⁰⁾ , 25일 5월 1일, 16일, 17일 6월 25일
경도~ 대마도	44	13	6월 27일 7월 3일, 8일, 22일, 30일 8월 1일, 4일, 6일, 7일, 13일, 14일, 20일 9월 26일
조선 경내	4	3	9월 30일 10월 25일, 26일

위의 표¹¹⁾는 『노송당일본행록』의 노정에 따른 시 편수, 날짜 수 그리고 기록된 날짜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록된 일수와 시 편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날짜가 기록된 것은 45일, 시는 202편으로 시 편수가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날짜에 많은 시를 써서가 아니라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시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고전종합DB>에 DB로 구축된 『노송당일본행록』은 날짜를 누르면 하위 범주에 여러 편의 시가 나와서, 모두 그 날짜에 쓴 시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는 DB구축 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모두 해당 일에 쓴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래는 <한국고전종합DB>에 『노송당일본행록』이 구축된 형식이다.

10) 4월 23일은 두 번 나온다. 같은 날에 시를 두 편 이상 썼더라도 날짜는 첫 번째 시에 한 번 나오는데, 이 4월 23일의 경우에만 ‘二十三日’이라는 날짜가 한 번 더 나온다.

11) 노정과 시 편수는 박중훈의 『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당대 日本認識(『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7면) 참조.

② 일본행록(日本行錄)	② 일본행록(日本行錄)
㉠ 경자년(1420, 세종 2) 윤 정월	㉠ 2월
㉡ 2월	· 3일
㉢ 3월	· 5일
㉣ 4월	· 13일
㉤ 5월	· 17일
㉥ 8월	· 20일
㉦ 7월	· 21일
㉧ 8월	· 28일
㉨ 9월	
㉩ 10월	

2월 3일을 클릭하면 세 편의 시가 나오고, 5일을 클릭하면 11편의 시가, 13일을 클릭하면 3편의 시가 나온다. 그런데 2월 3일 하위에 있는 세 편의 시가 모두 3일에 쓴 것이 아니라, 첫 편을 제외는 나머지 2편은 3일에 쓴 것이지, 4일에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5일 하위에 있는 11편의 시도 첫 번째 시는 5일에 쓴 것이지만 나머지 10편은 5일부터 16일 사이에 쓴 것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가 없다. 목판본을 보면 날짜가 시 제목의 일부인 듯 시 제목의 첫 부분에 쓰여 있고,¹²⁾ 실제 작품을 봤을 때 제목에 날짜가 없는 시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3일 하위에 있는 시 세 편의 경우도 첫 <관찰사 이발이 위로부터의 명령을 받들고 부산포에 와서 잔치를 열어 일본의 사승과 회례사를 전송하매 양예의 시에 차운하였다[十三日觀察使李潑承上命來釜山浦開宴餞日本使僧及回禮使次倪韻]>에 날짜 13일이 쓰여 있고, 나머지 두 편의 시 <대마도에 도착하여 양예에게 보임 2수[到對馬島示倪二首]>, <쌍작[雙雀]>에는 날짜가 없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첫 시는 부산에서 잔치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시는 대마도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13일에 잔치를 했고, 이후 14일부터 16일 중에 대마도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시와 세 번째 시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12) 본 논문에서 시 제목을 인용할 때 시 제목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번역된 제목에는 날짜를 쓰지 않되, 날짜가 나온 날 시의 경우 원문에는 날짜까지 표기하여 이해를 도울 것이다.

곧 『노송당일본행록』은 조선 후기 일본 사행록처럼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긴 노정의 일을 시로 기록하면서 날짜를 아예 쓰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중간 중간 날짜를 보여주어 대략적인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노송당일본행록』에 기록된 총 45일의 날짜 중 날씨가 기록된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하다. 2월 17일에 ‘청명하다[清明]’라고 나온 것, 4월 1일에 ‘바람이 순하다[風順]’라고 나온 것이 날씨의 전부이다. 이는 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되, 날짜별 기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정의 큰 흐름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일기체를 활용하여 10개월의 노정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영문은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을 살피면서 “일기가 하나의 독립된 형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기록한 ‘日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¹³⁾이라고 하였다. 이는 읽는 이에 따라 ‘완성되지 못한 일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런데 『노송당일본행록』을 살펴보면 일기를 미완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10개월의 노정을 시로 표현하되, 일기체 형식을 적절히 활용함을 알 수 있다. 곧 일기체적 전개를 통해 독자에게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글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다.

2.2. 詩序의 활용과 산문 삽입

송희경은 일본 사행을 시로 정리하면서, 함축적인 시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시서와 산문으로 작성하였다. 최초의 시서는 『詩經』의 시서라고 할 수 있다. 『시경』을 읽는데 서가 필요했던 것은 『시경』의 내용들이 매우 애매 모호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읊시의 형식인 『시경』의 문체로써 이들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¹⁴⁾

『노송당일본행록』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경』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상 속에서 본인의 감상을 시로 쓴 것이 아니라, 일본 사행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시

13) 정영문, 『宋希環의 ‘日本行錄’ 研究』, 『은지논총』14, 은지학회, 2006, 134~135면.

14) 천기철, 『詩序와 朱熹의 시 의식』, 『동양한문학연구』20, 동양한문학회, 2004, 7면.

로 쓴 것이기 때문에, 사행 과정을 알아야만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시는 자기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독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렇기에 『노송당일본행록』의 시는 제목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① 攝津州의 兵庫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王所와의 거리는 2일의 거리였다. 이튿날 亮倪가 먼저 왕소에 가서, 代官으로 왕에게 보고하며 멈춰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報人이 오기까지 머물렀는데, 대관이 와서 뵈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다.¹⁵⁾
- ② 일본 사람은 부모가 죽은 뒤, 七七日에 재를 올리고, 해마다 기일이 되면 또한 재를 올려 13년에 이르러 그친다. 내가 심수암에 있으며 보니, 5월 초 1일부터 왜인들이 魚物을 먹지 않았다.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달은 前王이 죽은 후 十三年忌가 끝나는 달이므로 御所와 온 나라 사람이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살생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孔達과 仁輔를 불러 말하기를, ‘일본의 왕이 우리들의 온 것을 보고 아직도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때를 당하여 權道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다.倪가 와서 말하기를, ‘어소에서 관인이 어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감동하여 기뻐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 3~4차에 이르렀다.¹⁶⁾
- ③ 서울에 돌아왔다. 이른 아침에 대궐에 나아가 숙배하니, 주상이 편전에 납시어 신을 부르시매, 신이 주상의 앞에 들어가니 일본 나랏일과, 가고 오는 사이의 풍랑에 신고한 상황을 물으시매, 자세히 아뢰고 나오니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대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노상에서 읊었다.¹⁷⁾

위는 모두 시의 제목들이다. 제목을 통해 ①번과 같이 이동 과정을 설명하

15) 十六日到泊攝津州兵庫。去王所二日程。翌日亮倪先歸王所，代官報告於王而止之。故留泊，報人來，代官來調設酒。 - 宋希環。『老松堂日本行錄』, 84~85면.

16) 日本人。父母歿後七七日設齋。年年遇忌日亦設齋，至十三年乃已。予寓深修庵見之，自五月初一日，倭輩不食魚。問其故，答云是月乃前王沒後十三年忌盡之朔，故御所及國人，不食魚不殺生也。予召孔達仁輔曰，日本王見吾等來，尚有猜疑之心，當此時，權不可無也。自是不食魚，倪來日，御所聞官人不食魚，不勝感喜。如此說者至於三四。 - 宋希環。『老松堂日本行錄』, 97~98면.

17) 十月二十五日入京。早朝詣闕肅拜，上御便殿，召臣，臣入上前，問日本國事與往來風濤辛苦之狀，臣具啓退，賜酒食。出闕還家，路上吟。 - 宋希環。『老松堂日本行錄』, 132면.

기도하고, ②번과 같이 일본의 풍속을 설명하기도 하며, ③번과 같이 서울에 도착한 후 임금을 만나고 시를 쓰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②번의 경우에는 대화까지도 직접 인용되어 있다. 마치 제목의 자리에 시서가 잘못 쓰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제목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송희경은 위와 같이 설명하는 제목을 여러 차례 쓰는데, 이렇게 제목만으로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많다. 그렇기에 송희경은 시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앞서 『노송당일본행록』의 노정별 시 편수와 낱짜 수를 살펴 보았는데, 다시 노정별 시서 편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정	시 편수	시서 편수	시서 비율
조선 경내	30	1	3%
대마도~경도	82	33	40%
경도	42	18	43%
경도~대마도	44	18	41%
조선 경내	4	1	25%
전체	202	71	35%

총 202편의 시 중 71편에 시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의 제목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렇듯 시서를 붙여서 이해를 도운 것이다. 전체적으로 35%에 달하는 시에 시서가 있어서 시의 이해를 돕는다.

그런데 일본 노정 중에는 시서가 있는 시가 40%가 넘는데, 조선 경내는 시서가 있는 시가 적다. 특히 일본으로 가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는 30편에 이르지만 서는 단 1편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 경내인지라 지역이나 만나는 인물, 풍속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시를 이해할 수 있고, 일본에서처럼 해적을 만나거나 구류되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자면 설명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시서

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를 도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서는 시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장치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사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산문 자료가 되고 있다.

『노송당일본행록』 시서에 대해서는 정영문, 박종훈 등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묘사하는 對象과 관련되는 來歷, 역사적 사실,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는 ‘詩序’를 첨부하여 보충한 것은 체험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정보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¹⁸⁾, “시만으로 부족한 것은 詩序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보충했다. 일본의 지명이나 혹은 조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거나, 당대 일본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시서를 통해 제공한 것이다.”¹⁹⁾ 정도의 언급이 전부이다. 강주진이 1974년에 『노송당일본행록』을 해제하면서 “약간의 詩序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를 쓰기 위한 전제이며 설명일 뿐이다.”²⁰⁾라고 한 것에 비해서 시서의 중요성은 훨씬 인식했지만, 시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나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서의 내용적 역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도록 할 것이다.

시서는 해당 시 한 편에 대한 서이다. 그러다보니 사행 전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송희경은 시서로도 부족한 부분은 산문을 삽입하여 보충하였다. 『노송당일본행록』에는 다른 사람이 이 책에 대해 쓴 서, 발을 제외하고 송희경이 직접 쓴 산문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산문은 <예조에 올리는 글[上禮曹文]>로 2월 28일 시와 3월 1일 시 사이에 들어 있다. 2월 28일 시가 <즉사[二月二十八日卽事]>이고, 3월 1일 시가 <대마도를 떠나다[三月初一日發對馬島]>이니, 대마도를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다. 대마도에 처음 도착한 2월 20일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거년의 정벌에 가산이 탕진되었으나 이제 한마디도 언급함이 없고, 국가를 향한 말들이 다 지성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우리를 보고 대접하는 것도 가장 근후하였습니다. …… 대체로 이 섬의 왜인들은 얼굴이 菜色이었으니 기근의 근심이 정녕 있습니다.”²¹⁾와 같이 대마도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 짓고

18) 정영문, 『宋希璟의 ‘日本行錄’ 研究』,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135면.

19) 박종훈, 『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당대 日本認識』, 『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7면.

20) 강주진, 『日本行錄 解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있다.

두 번째 산문은 마지막 시가 끝난 다음에 제목 없이 실린 것²²⁾이다. “永樂
경자년(1420, 세종 2) 봄에 나는 왕명을 받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동쪽 바다에 떠서 대마도에 이르러 征討 이후의 처지를 보고 잔인하고 흉악
한 풍속을 설유하였다.”²³⁾로 시작되는 이 글은 일본 사행 전체를 공적인 임무
와 관련하여 정리하고, 일본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郭麟과 비교하여
사행의 업적을 평가하며, 임금의 명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
한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하나는 대마도를 떠나면서, 다른 하나는 사행 전 과정이 끝나고 쓴 것으로
경험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와 시서로는 경험 전반을 정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편의 산문을 삽입하여 일본 사행 전체를 정리한
것이다. 시로 일본 사행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은 송희경은 이렇듯 일기체 형
식, 시서, 산문 등을 활용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였고, 독자의 이해를 극대화시
켰다.

3. 『노송당일본행록』 詩序의 역할

3.1. 노정 제시

『노송당일본행록』의 시서는 앞서 살폈듯이 시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
분을 보완하며, 일본 사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산문 자료이다. 송희
경은 모든 시에 시서를 쓴 것이 아니라 약 35%의 시에 시서를 붙였다.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1) 去年行兵, 家產蕩盡, 今無一言及之, 向國家語言, 皆出至誠, 見吾接待, 最爲勤厚. …… 大抵此
嶋倭奴多有菜色, 飢饉之患, 丁寧有之矣.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56면.

22) 박종훈은 작품을 정리하면서 <所懷>(『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당대 日本認識, 『동방학』
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7면)로 표현하였고, <한국고전종합DB>에는 마지막
구절을 따서 <還本國書>라는 제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다.

23) 永樂庚子春, 余受命, 使于日本. 泛東溟到馬嶋, 見兵餘之地, 諭殘兇之俗. - 宋希環. 『老松堂日
本行錄』, 133~134쪽.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 것을 선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서를 통해서 작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정 제시, 위기 상황 묘사, 건문 서술 세 가지 역할이 핵심을 이룬다. 이 중 첫 번째 노정 제시는 시만으로는 노정을 보여주기 부족하기에 시서에 나타난 것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를 다녀오는 사행록의 특성상 노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송희경은 시서에 노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 이해의 편의성을 도왔다.

15일 부산포에서 배를 출발하여 草梁에 이르니 일몰이 되어, 일본 배와 함께 묵었다. 16일 새벽에 노를 저어 石城浦에 이르고, 辰時末(오전 9시경)에 바다로 나와 申時末(오후 5시경)에 대마도의 北面 也音非梁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순풍을 타고 쾌하게 건너왔으므로 상하가 다 기뻐하였다.²⁴⁾

위는 <대마도에 도착하여 양예에게 보임 2수[到對馬嶋示倪二首]>라는 시의 시서 전문으로, 2월 13일과 2월 17일 사이에 이 시가 실려 있다. 부산포를 출발하여 대마도에 도착한 후에 지은 것으로 제목을 통해 대마도에 도착했다는 간략한 노정을 알 수 있고, 시를 통해 당시의 감상을 볼 수 있다.

시는 7언절구로 첫 수에서 “부산의 산 아래서 조각 돛 퍼며 / 사나운 파도를 바라보니 아득하네 / 홀연히 긴 바람이 빨리 불어 보내 주어 / 뱃전을 의지한 지 순식간인데 부상에 이르렀네[釜山山下片帆張 / 洶湧波濤望渺茫 / 忽有長風吹送疾 / 憑船瞬息到扶桑]”라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노정을 감상적으로 표현하고, 둘째 수 마지막에 “다시 깨달았네 황천이 우리 성군 돕는 것을 [更覺皇天佑聖君]”이라 하여 감탄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시는 아름답지만 구체적인 노정은 알 수 없어, 시서에 날짜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인 지명까지 들어 제시하였다. 시에 순식간에 부상에 이르렀다고 한 것도, 순풍을 타고 건너왔다는 시서의 설명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다. 이러한 시서를 통한 노정 요약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24) 十五日, 釜山浦發船, 到草梁日沒, 與日本船同宿. 十六日曉, 搖櫓到石城浦, 辰末放洋, 申末到對馬島北面也音非梁泊船. 順風快渡, 上下皆喜.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44면, <到對馬嶋示倪二首>

조선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의 하나를 보면 아래와 같다.

7월 30일 큰 바람을 만나 志賀島에 이르러 정박했다. 8월 초 1일은 斷過寺에 머물렀으며, 초 2일에는 正庵에 머물렀다. 초 3일에는 바람이 그치기에 바다에 들어가니, 풍랑이 오히려 그치지 않아서 배가 거의 전복할 뻔하였다.²⁵⁾

위는 <정암을 떠나 박가대로 향함[發正庵向朴加大]>이라는 시의 시서 전문이다. 8월 1일과 8월 4일 사이에 있는 10편의 시 중 하나로 4일간의 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시에는 날짜가 쓰여 있지 않지만, 시서에 8월 3일까지의 일정이 요약된 것으로 보아 이 시가 8월 3일에 쓰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시는 7언절구로 “한 척의 작은 배 말처럼 뛰는데 / 광풍에 아직도 파도 멎지 않네 / 놀란 물결 이따금 머리 위에 쏟아지니 / 낮빛이 검은 채 저 하늘만 생각하네[一隻小舟似馬驤 / 狂風猶未息滄浪 / 驚濤往往瀉頭上 / 面黑無言念彼蒼]”라 하여 파도에 놀라는 마음만을 표현했다. 제목을 통해 정암을 떠나 박가대로 향한다는 간략한 노정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서가 있기 때문에 4일간의 노정을 확인할 수 있고, 또 8월 3일에 전복될 뻔한 상황을 겪고 이를 시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3.2. 위기 상황 묘사

『노송당일본행록』의 시서에는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것이 많다. 조선초 태조 원년(1392)부터 세종 25년(1443)까지 51년간 155회의 왜구침략이 있었으므로,²⁶⁾ 일본이 해적이 많은 나라라는 인식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대마도 정벌이 일어난 1419년 바로 다음해인 1420년의 사행인지라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풍랑의 위험이 도사리는 바닷길을 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

25) 七月三十日, 遇大風, 到泊志賀島. 八月初一日, 留斷過寺, 初二日, 留正庵. 初三日, 風止入海, 風浪猶未息, 幾於覆船.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126면, <發正庵向朴加大>

26) 진중근,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 -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석당논총』15,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89, 343면.

다. 그렇기 때문에 시서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묘사가 여러 차례 나온다.

시서에 나타난 위기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첫째는 풍랑으로 인한 위기이다. 일본 사행은 배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풍랑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송희경 일행도 여러 차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를 시로도 표현하지만 시서로 다시 자세히 풍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묘사 한다.

이날 섬 안에 바람이 없기에 이른 아침에 한바다에 들어갔더니, 동풍이 크게 사나워서 검은 물결이 하늘에 솟아오르고, 樓船이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갔다 다시 나오곤 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나는 서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판자 위에 새끼를 달아놓고, 두 손으로 새끼를 더위잡은 채 온종일 배를 따라 뛰놀았다. 그러자 실신 상태가 되어 거의 죽게 되었으며, 사람들도 다 인사불성이 되었다. 오직 船主와 領船 등 5~6인만이 뱃머리가 없어 배 안에서 盡力한 덕택으로, 申時(오후 3시~5시)에 일기도에 도착하여 살았다.²⁷⁾

위는 조선으로 귀환하던 중인 8월 23일의 시 <지하도를 출발하여 일기도로 향함[八月二十日發志賀島向一歧島]>의 시서 전문이다. 시는 7언절구로 “뱃머리에 검은 산이 무수히 일어나네 / 뉘 알리 당년에 이런 걸음이 있었을 줄 / 엽칠 듯 빠질 듯하여 놓지도 서지도 못하였다 / 새끼 잡고 뛰노니 일이 참 놀라워[船頭無數黑山生 / 誰識當年有此行 / 欲覆欲沈難臥立 / 攀繩踴躍事堪驚]”라 하여,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반면, 시서에서는 당시 풍랑에 거의 실신할 뻔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외에도 풍랑에 배가 거의 전복될 뻔한 위기 상황 묘사가 2월 17일경, 3월 1일, 3월 23일의 시 등에서도 나온다. 특히 7월 22일과 7월 30일 사이의 시 <흑석서관에 정박함[泊黑石西關]>에는 풍랑에 배가 방향을 잃고 석벽에 부딪힐 위험에 처하여, 정신없이 돛을 당기고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새벽에 바람이 그치자 사람들이 우는 모습이 시서에 묘사되어 있다.

27) 是日, 島內無風, 早朝入大洋, 東風大惡, 黑浪湧天, 樓船出沒浪中. 船人驚怖喪魄. 余不得立臥, 懸繩於板上, 兩手攀繩, 終日隨船踴躍. 恍惚幾死, 衆皆不省人事. 惟船主領船等五六人無水病, 盡力船中, 申時到一歧得生.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130~131면, <八月二十日發志賀島向一歧鳴>

시서에 주로 나타난 위기 상황 들쭉는 해적으로 인한 것이다. 왜구가 끊이지 않았던 당대 상황 속에서 송희경은 노정 중에 해적을 만나게 될까 노심초사하였다. 송희경 일행이 실제로 해적을 만난 때는 4월 1일과 4월 4일 사이로, <해적을 봄[見海賊]>이라는 시의 시서에 해적과 대치한 위기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조금 뒤에 우리 배가 점점 가까이 가자니, 한 작은 배가 갑자기 그 섬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오는데, 빠르기가 화살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것은 해적입니다.” 하였다. 곧 북을 치고 旗를 벌여 세우고 피리를 불며 팽과리를 치고 갑옷을 입고 활을 잡고 섰다. 바라보니 작은 배 안에 사람들이 삼[麻]처럼 뻑뻑이 서 있었다. 우리 배는 돛을 멈추고 천천히 가면서 亮倪와 宗金의 배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그 두 배가 오자 賊船은 바라보더니 북면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버렸다. 우리는 두 배와 함께 가서 화를 면하였다.²⁸⁾

위는 시서의 후반부로, 전반부에는 仁輔가 지금 지나치는 곳이 과거 사행에서 해적을 만난 곳이라고 설명하여 송희경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온다. 후반부에는 위와 같이 실제 일행이 해적을 만나게 된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해적선을 맞아 북을 치고, 기를 세우고, 갑옷을 입고 서 있는 송희경 일행의 모습과 뻑뻑이 삼처럼 서있는 해적들의 모습이 눈에 보일 듯 표현되어 있다.

실제 해적을 만난 것은 위의 한 번이지만 해적에 대한 언급은 여러 차례 나온다. 항해 중 배를 보게 되면 먼저 해적선인가 의심하여 두려워하고, 해적 마을을 보고 두려워서 숨을 죽인 후 안도하는 상황을 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1편의 시서 중에 풍랑으로 인한 어려움이 표현된 것이 8차례, 해적이 언급된 것이 8차례, 도둑이 언급된 것이 2차례로 총 18차례에 이른다. 또 송희경은 일본 사행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은 회례사 崔云嗣의 일을 시서에 설명하고 직접 그 사당에 제를 올리기도 하며, 『노송당일본행록』 마지막 시에서는 1291년

28) 俄而我船漸近, 有小船忽自其島向我來疾如箭, 衆皆曰, 此乃海賊也, 擊鼓張旗, 吹角鳴鐃, 被甲執弓而立, 望見小船人立如麻, 我船停帆徐行, 待亮倪及宗金船, 俄而, 二船及來, 賊船望之, 沿北邊向西去, 仍與二船並行免禍, 賊來時, 有小舟忽自隨後, 人言崖上賊送酒助戰者也. - 宋希璟 『老松堂日本行錄』, 76~77면, <見海賊>

에 일본에 사신갔다가 죽은 郭麟을 언급한다. 이는 대마도 정벌 직후의 일본 사행에서 두려움이 컸던 송희경의 주된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3.3. 견문 서술

사신으로 해외를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대마도정벌 직후로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의 일본 노정이긴 하지만, 새롭게 접하게 된 견문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함축적이며 압축적인 시의 특성상 견문에 대한 감상은 표현할 수 있어도, 견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송희경은 노정 중의 다양한 견문을 시서로 서술하였다.

견문의 사전적 의미는 ‘見聞’이라는 한자어의 뜻 그대로 ‘보고 들음’, ‘보고 듣거나 깨달아 얻은 지식’이다. 그러다보니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본 노정 중 보고 듣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크게는 당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서술하기도 하고, 작게는 일본의 모기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견문을 서술한 것 중 가장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것은 일본의 풍속에 대한 것이다.

이 나라의 풍속은 여자가 남자보다 배나 많기 때문에 別店에서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하여, 노니는 여인이 태반은 사람을 보면 나와서 길을 막고 자고 가라고 청하는데, 옷을 잡아끌기까지 한다. 店內에 들어가 그 돈만 받으면, 비록 대낮이라도 원하는 대로 따른다. 대체로 그 고을과 마을들이 모두 강과 바다에 접하고 있어서 맑은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자못 얼굴이 예쁘다. 또 남자 나이가 20세 이하로서 집에서 학습하는 자는 승도가 그의 눈썹을 깎고 먹으로 눈썹을 그리며, 입술에 붉은 칠을 하고 낮에 분을 바르며 채색 옷을 덮어쓰게 하여, 여인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느리고 있다. 왕이 또한 미소년을 궁중에 뽑아 들여 宮妾이 비록 많더라도 이 소년을 가장 사랑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받는다.²⁹⁾

29) 此國之俗，女倍於男，故其於別店，淫風大行，遊女迨半，見人，則遮路請宿，以至牽衣入店，受其錢則雖白晝亦從。蓋其州州村村，皆緣江海，孕得淑氣，故生女頗有姿色。又男子年二十歲以下，學習於寺者，僧徒髡眉墨畫，塗朱粉面，蒙被斑衣，爲女形率居，王亦擇入宮中，宮妾雖多，尤愛少年男子，故國人皆效之。- 宋希環。『老松堂日本行錄』，107~108면，〈日本奇事〉

위는 <일본의 기이한 일[日本奇事]>이라는 시의 시서 전문이다. 시는 7언절구로 “맑은 강이 곳곳마다 수향을 이뤘는데 / 노는 계집 단장하고 길가에 가득하네 / 묻노니 왕궁에서 누가 제일인가 / 연지 찍고 분 바른 소년이라네 [清江處處水爲鄉 / 遊女爭妍滿道傍 / 借問王宮誰第一 / 塗朱粉面少年郎]”라는 시를 통해서 창녀가 많다는 것과 왕궁에서 소년이 사랑받는다 정도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를 통해서 창녀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며, 직접 본 듯 화장을 한 미소년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송희경은 서를 통해 이러한 풍속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할 뿐, 본인의 어떠한 평가도 덧붙이지 않는다. 이는 건문을 서술한 다른 대부분의 시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보았을 그 많은 건문 중에 시서에 별도로 기록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송희경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일기로 날마다 보게 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풍속 중 특별하게 느껴진 것을 시로 썼고, 그 중에서도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시서를 활용하여 건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 제목, 시의 내용 등과 함께 시서를 살핀다면 송희경의 일본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농가에서는 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어, 다음해 여름에 베어들이고 즉시 벼를 심어 초가을에 베다. 또 메밀을 심어 초겨울에 베어 들인다. 이렇게 하여 한 논에 1년에 세 번 심는다. 이것은 냇물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여 논을 만들고, 냇물을 터서 물을 빼어 밭을 만들기 때문이다.³⁰⁾

위의 시서는 <아마사지에 유숙하면서 일본의 일을 읊음[宿阿麻沙只詠日本事]>이라는 시의 시서 전문이다. 시는 7언절구로 “수춘 산곽에 저녁 연기 비졌는데 / 일이 없어 사람 한가한데 이상한 일이 많네 / 일년 세 번 경작하여 곡식을 거두니 / 인의만 안다면 자랑할 만하겠네[水村山郭火烟斜 / 無役人閑異事多 / 耕地一年三刈穀 / 若知仁義亦堪誇]”라고 하여, ‘인의만 안다면’이라

30) 日本農家, 秋耕種大小麥, 明年夏刈之, 卽種苗, 秋初刈之. 又種木麥, 冬初刈之, 以一畝一年三種者. 川塞則儲水爲畚, 川決則去水爲田故也. - 宋希環. 『老松堂日本行錄』, 112면, <宿阿麻沙只詠日本事>

는 구절 속에 일본인이 인의가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긴 하지만, 1년 삼모작을 자랑할 만한 일로 긍정적으로 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서 자체에는 삼모작에 대한 평가가 없지만, 시를 통해 송희경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서를 통해 구체적인 삼모작 과정을 알 수 있다. 서는 짧지만 파종하는 곡식, 파종과 수확 시기, 낫물을 활용하여 논과 밭을 전환하는 방법까지 삼모작에 관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삼모작에 대한 송희경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노송당일본행록』의 시서에는 일본의 승려, 절과 관련한 서술도 여러 차례 나오며, 노정 중의 일본인 교유, 중국인과의 만남, 회례사로서 임무 수행과정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노정 제시는 사행의 노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독자 이해를 돕는 것으로 작자의 생각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기 상황 묘사와 견문 서술 부분을 살펴보면 작자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위기 상황 묘사를 통해서 는 사행 당시 송희경의 주된 심리를 볼 수 있고, 송희경에 의해 선택되어진 견문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과 주된 관심사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노송당 일본행록』의 시서는 단순한 시의 보완제가 아니라 사행 노정에서 작자의 심리와 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노송당일본행록』의 구성 방식과 詩序의 역할을 살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장에서는 구성 방식을 살펴 ‘노정에 따른 일기체적 전개’, ‘시서의 활용과 산문 삽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시로 일본 사행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은 송희경은 일기체 형식, 시서, 산문 등을 활용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였고, 독자의 이해를 극대화시켰다.

3장에서는 『노송당일본행록』 구성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시서의 역할을 살폈다. 이를 통해 시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정 제시, 위기 상황 묘사, 견문 서술 세 가지 역할이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송희경은 202편의 시 중 71편의 시에 시서를 붙였는데, 시서는 단순한 시의 보완제

가 아니라 사행 노정에서 작자의 심리와 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노송당일본행록』의 문학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연구한 것으로, 202편 시의 내용적 고찰은 진행하지 않았다. 시, 시서, 산문을 포괄한 『노송당일본행록』의 문학적 연구, 후대 일본 사행록과의 비교를 통한 문학사적 의의 고찰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이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宋希璟, 『完譯 老松堂日本行錄』,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1.
宋希璟, 『日本行錄』, 《국역해행총재》Ⅷ, 민족문화추진회, 197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2. 논저

- 강상운, 『老松堂 日本行錄』, 『국제정치논총』3, 한국국제정치학회, 1964.
김영식, 『老松堂日本行錄』을 통해 본 15세기 朝鮮의 對日本交涉과 認識,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문중선, 『15세기 回禮使 宋希璟에 關한 研究-日本行錄을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중훈, 『老松堂日本行錄』에 보이는 當代 日本認識, 『동방학』2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水野俊平, 『老松堂日本行錄』에 나타난 日本 지명,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2.
심재완, 『老松堂日本行錄 解題』, 『모산학보』2, 동아인문학회, 1991.
윤인현, 『海行摠載』 所載 日本 기행시 考察, 『한문학보』21, 우리한문학회, 2009.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이효정, 『朝鮮 前期 士大夫의 日本 使行 經驗 -宋希璟의 ‘日本行錄’을 中心으로-』, 『조선통신사연구』5, 조선통신사연구회, 2007.
정영문, 『宋希璟의 ‘日本行錄’ 研究』, 『온지논총』14, 온지학회, 2006.
진중근,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 -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석당논총』15,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89.
천기철, 『詩序』와 朱熹의 시 의식, 『동양한문학연구』20, 동양한문학회, 2004.
한태문, 『庚子回禮使(1420)와 히로시마의 오노미치(尾道)』, 『국제어문』62, 국제어문학회, 2014.

【국문초록】

『老松堂日本行錄』은 宋希璟(1376~1446)이 회례사로서 1420년 일본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것이다. 1420년 윤 1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의 일본 사행이 202편의 시와 두 편의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송당일본행록』의 문학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독특하면서 복합적인 구성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장에서는 구성 방식을 살펴 ‘노정에 따른 일기체적 전개’, ‘詩序의 활용과 산문 삽입’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시로 일본 사행을 정리하라는 명을 받은 송희경은 일기체 형식, 시서, 산문 등을 활용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였고, 독자의 이해를 극대화시켰다. 3장에서는 『노송당일본행록』 구성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시서의 역할을 살폈다. 이를 통해 시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정 제시, 위기 상황 묘사, 견문 서술 세 가지 역할이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송희경은 202편의 시 중 71편의 시에 시서를 붙였는데, 시서는 단순한 시의 보완제가 아니라 사행 노정에서 작자의 심리와 의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노송당일본행록』, 송희경, 구성 방식, 노정, 일기체, 詩序

【Abstracts】

Composition Method and Role of Poetic Foreword of 『Nosongdangilbonhaengnok(An Early Korean Mission to Japan)』

Kim, mi-sun

『Nosongdangilbonhaengnok』 is a travelogue to Japan, which was written by Song Hui-gyeong (1376~1446) after he traveled to and from Japan in 1420. It contained 202 poems and two proses after he traveled to and from Japan from January 15 to October 26, 1420. To appreciate the literary values of 『Nosongdangilbonhaengnok』, its unique and complex composition should first be examined systematically.

Chapter 2 examined the composition method, and identified two characteristics of "diary-style writing according to the itinerary," and "utilization of poetic foreword and insertion of prose." At the king's order of writing a travelogue to Japan, Song Hui-gyeong further perfected the writing using the diary style, poetic forewords and proses, thus boosting the readers' understanding thereof. Chapter 3 examined the role of poetic forward, seen as the most unique characteristic of 『Nosongdangilbonhaengnok』 composition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poetic forward contained diverse contents, and that it had three roles, e.g., presentation of itineraries, description of crisis situations, and description of travels. Song Hui-gyeong wrote poetic forewords for 71 poems of 202 poems, and poetic

forewords not just complement the poems, but also offer a guess of the author's psychology and mindset about travels.

Key words : 『Nosongdangilbonhaengnok』, Song Hui-gyeong, composition method, itinerary, diary style, poetic foreword

이 논문은 2014년 12월 2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